

새 책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림 외 지음)=각자의 일을 가진 여성 작가 10명이 집에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들려준다.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집을 활용하고, 집과의 친밀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각기 다른 매력으로 다가와 흥미롭다. 세미콜론. 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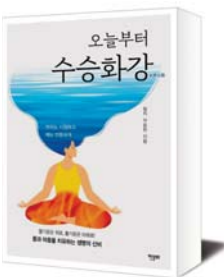
▶포스트휴머니즘의 쟁점들(강우성 외 지음)=책은 포스트휴머니즘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양한 시선에서 검토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포스트휴머니즘이 필요할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고자 제안한다. 포스트휴머니즘이 아우르는 다양한 연표 소개부터 최근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신유물론'을 개괄하면서 문학 읽기와 갖는 접점 등도 모색한다. 갈무리. 1만8000원.



▶정부의 곤충학 강의(정부희 지음)=정부희 박사가 곤충에 대해 꼭 알아 할 기초 지식을 쉽게 풀어 쓴 곤충학 입문서다. 곤충의 탄생과 진화부터 몸 생김새와 여러가지 변태 양상, 한살이와 생존 전략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연구 결과에 풍부한 사진 자료를 곁들여 보다 쉬운 글로 풀어냈다. 보리. 3만3000원.



▶오늘부터 수승화강(이승현 지음)=팬데믹 시대,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자각을 하게 된다. 저자는 그동안 개발해온 수많은 심신수련법을 꿰뚫는 궁극의 건강 원리로서 '수승화강'을 제시한다. '수승화강'은 머리는 시원하고, 아랫배는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다. 저자는 수승화강 상태일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최고의 의사인 면역력과 자연치유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문화. 1만5000원.



▶씨앗 빌려주는 도서관(미셀 멀더 지음, 김은영 옮김)=클로에는 멀종유기 채소를 지키는 할아버지와 지내며 가족의 소중함과 씨앗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책은 불행한 가정의 이유가 제각각이듯 해결방법도 다양하며, 그 과정에서 가족간의 대화와 이해, 포용이 중요함을 알려준다. 또 씨앗이 어찌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식물을 살릴 유일한 희망일 수 있다고 말한다. 풀빛미디어. 1만3000원.



▶우리가 함께 달릴 때(다이애나 하먼 애셔 지음, 이민희 옮김)=주의력 결핍 장애를 앓고 있는 열두살 소년 조지프 프리드먼의 달리기 도전기이자 조지프의 뽀빠지를 누구보다 따스하게 응원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다. 누구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며, 어제보다 한 발 앞으로 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창비. 1만3000원.



나이테가 알려주는 과거 기후, 미래의 인간

트루에의 '나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간 사회 영향 기후 변화 연륜연대학으로 방향 모색

미국 애리조나대학교 나이테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발레리 트루에 교수는 연륜연대학자다. 나이테를 이용해 과거의 기후를 연구하고 그것이 생태계와 인간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연륜연대학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과학이다.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고 뺨눈으로 나이테를 볼 수 있으니 말이다. 연륜연대학은 또한 생태학, 기후학, 인류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인간과 환경의 역사 사이의 상호 작용을 밝힐 수 있다. 나이테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나무가 자라던 지구 표면의 과거 기후와 지표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권의 과거 기후를 알게 된다.

제국에서 아시아의 목골 제국까지 다으며 과거의 기후 변화가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인간의 목재 사용과 산림 벌채의 오랜 역사가 경관, 인간 사회 그리고 지구 시스템 전체에 발자취를 남겼다고 했다. 극단적인 벌채의 결과는 이스터섬에서 발견된다. 인간이 이스터섬에 최초로 밭을 디딘 시기는 1200년쯤이다. 당시 이 섬에는 거대한 야자 등 약 20종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었다. 이 나무들은 900개 이상의 거대한 모아이 석상을 운반하고 세우거나 집을 지을 목재와 뿔갈로 잘려 나갔고 1772년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헤베인이 이 섬에 도달했을 때 나무는 한 그루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데 숲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산림 탄소 격리가 가지는 잠재적 경고와 위험을 잘 파악해야 한다. 연륜연대학자들은 이 탄소 퍼즐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강력



한 도구를 손에 쥐고 있다. 나이테 측정기를 이용해 서로 다른 수종, 수령, 토양, 기후의 나무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저장되었는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이테를 통해 캘리포니아 산불의 역사를 되짚고, 허리케인 등 극한 날씨의 움직임을 추적했던 저자는 "나이테는 속삭임과 고함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우리를 하여금 최악의 결과를 완화하거나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발견하도록 격려한다"고 했다. 조은영 옮김. 부키. 1만8000원. 전선회기자

정의의 여신 '디케'는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

이지현의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담긴 내용이다. 우리는 이 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래서 법은 평화를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법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와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정의의 실현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고, 재판은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법관의 개인적 성향이나 판단에 따라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국민의 감시가 요구된다고 했다.

법학 박사이자 헌법학자인 이지현이 쓴 '10대와 통하는 법과 재판 이야기'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그 궁금증을 풀어준다. 법을 잘 알고 사용하면, 더 멋진 세상을 살 수 있다는 믿음 아래 저자는 말하듯이 써 내려간 글을 통해 '진짜' 법의 정신을 나누려 했다.

그렇다면 법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아니다"라고 답한다. 정당성을 따져보고 국민을 위한 법인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회가 흘러온 지난 역사에서 보듯, 악법은 우리 힘으로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법은 도덕과 어떻게 다를까. 법은 강제성이 있고, 행위의 유무를 따지고, 공권력으로 제재한다는 점이 도덕과 구분된다. 개인이 아무리 선하고 양심적이라고 해도 한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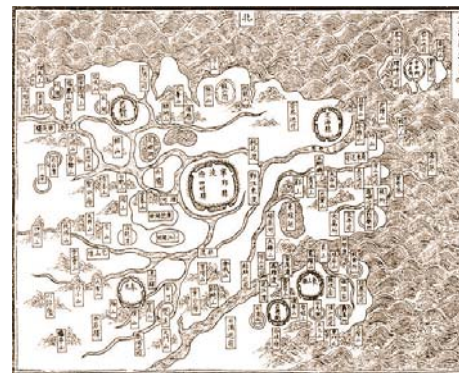
법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은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디케'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같은 법이라는 강제성과 정확한 판결, 저울은 형평성을 각각 의미한다. 거기다 두 눈을 가린 이유는 편견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저자는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며 "그래야만 법이 세상의 아픔을 따뜻하게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철수와영희. 1만3000원.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윤성익의 '왜구, 그림자로 살다' 동아시아 바다 출몰한 '왜'의 다양성

1487년 경자관에 임명돼 제주에 부임했던 최부는 부친상을 접하고 1488년 윤정월 3일 고향 나주로 향하다 풍랑을 만나 표류한다. 최부 일행은 중국 절강성 영파부에 다다르는데, 명나라 관헌들은 바다를 건너온 정체를 모를 이들을 의심한다. 왜구로 몰려든 최부는 수 차례의 필담 등 필사적 노력 끝에 자신들은 조선인, 그것도 표류인이라고 밝히며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다.



현재 제주에 살고 있는 윤성익 박사의 '왜구, 그림자로 살다'는 동아시아 역사 속에 여러 모습으로 드러나는 왜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학문적 영역의 개념에서 왜구를 13-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동아시아의 바다에서 활동하던 존재로 한정해 다뤘다.

저자는 13세기와 14세기의 왜구에 차이가 있고, 14-15세기의 전기왜구와 16세기의 후기왜구도 상당히 다른 면이 많다고 했다. 후기왜구의 경우 '다수가 중국인이었다'고 설명되지만

일본인만으로 이루어진 왜구도 있었다. 동아시아 해역에서 왜구가 들끓던 시기는 주로 중국이나 고려(혹은

조선), 그리고 일본의 국가권력이 통제력을 잃은 부분 상당한 혼란기였다. 3국의 바다가 밀무역과 약탈의 현장으로 변하기 십상이었고, 국가권력은 해법을 강구했다. 하지만 표류인을 왜구로 몰아 죽이는 등 그러한 시도가 늘 성공적이진 않았다.

혼란스러웠던 동아시아 3국의 내부질서가 회복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정립되면서 왜구도 점차 그 안으로 편입되어 갔다. 통치 권력의 강화와 안정화는 왜구의 존립을 어렵게 만들었다.

왜구란 존재는 희미해졌지만 나라마다 다른 방식으로 소비됐다. 일본은 군의 진격과 점령지 확대 명분에 왜구의 공적을 강조하거나 날조해 써먹었다. 중국은 '일본인 침략자' 왜구를 물리친 척계광을 '민중 영웅'으로 부르며 '하나의 중국' 역사관을 강화했다. 한국에서도 영웅 이상계를 만드는 데 쓰거나 열녀나 충신의 이야기에 악역으로 등장시켰다.

저자는 "각각의 지역에서 그리고 시대에 따라 왜구는 그 다양한 모습 중 일부만이 부각되어 이용되어 왔다"면서 "왜구의 실체라는 것을 밝힌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던 것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세창미디어. 9500원. 전선회기자



사려니숲길 붉은오름 입구 (표선면 가시리 산158-4)

2021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열세번째 2021. 6. 4(금) ~ 6. 6(일)

주최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산림문화체험사려니숲길위원회 후원 산림청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1 제주산림문화체험 사려니숲 에코힐링체험 개최를 축하합니다"

5월 31일(월) 09:00부터 선착순 사전예약(1회차당 20명, 하루 6회)

산림문화체험사려니숲길위원회 064-750-2291, 2543

13th Saryeoni Forest Eco-healing Experience

디자인솔루션 아이엔지기획

제주시 오일정 서길 40번지(오일정 내) T. 064-724-7177 F. 064-724-7178

광고기획 / 행사기획 협소미, 실사출력, 배너, LED채널간판 옥외광고물, 간판, 각종사인물체제작싱크인테리어, 리모델링 전시대, 행사부스, 집기 제작 CI, BI, 패키지

사려니숲 사진 공모전

- 내용 : 1인 1점 '사려니숲길'에서 촬영한 미 발표작
- 기간 : ~6월6일(일)까지
- 출품 방법 : 제출 시 작품명(따이름), 성명, 연락처 기재(수상시 연락)
- 시상 : 대상(1점), 우수상(1점), 입선(1점) 등 총 상금 50만원
- 문의 및 제출 : 064-750-2291 / ksjun@hallailbo.co.kr
- ※ 출품작의 초상권 및 명예훼손, 저작권 분쟁에 따른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 수상시 소유권은 산림문화체험사려니숲길위원회에 귀속됨

사려니숲길 ASMR

- 내용 : 사려니숲길의 다양한 소리를 온라인으로 들어보기
- 기간 : 6월4일-6일(3일간) 유튜브 채널 TV Halla 업로드 예정

물찾오름 탐방안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자에 한해 탐방 허용

일자	회차	시간	인원
6.4(금)	1	10:00	각 회차 (시간)당 20명
	2	10:30	
	3	11:00	
6.5(토)	4	11:30	
	5	12:00	
6.6(일)	6	12:30	